국립전주박물관, 신소장품 최초 공개

상설관 전주·조선왕실실·선비서예실서 채용신 '영모화'·이황 '자양금명' 등 9건 26점 신소장품 등 전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는 상설전시관 전주와 조선왕실실과 선비서예실의 전시품을 교체 전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층 전주와 조선왕실실은 채용신의 〈영모화〉를 비롯해 17건 51점을, 1층 선비서예실은 이황의 〈자양금명〉을 비롯해 20건 등 모두 38점을 새롭게 선보인다.

먼저, 전주와 조선왕실실 전시품 중 3건은 신소장품으로 이번 교체 전시에서 처음으로 대중에 선보인다. 〈영모화〉는 초상화가로 유명한 채용신의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채용신은 스승 없이 혼자 배우고 익혀 자신만의 동물화 화풍을 만들어갔는데 전례가 없는 사실적인 표현들이 눈에 띈다. 어미 젖을 물고 있는 강아지, 연잎 아래 모여드는 올챙이, 목마를 탄 새끼 원숭이의 표현 등은 그림을 감상하는 재미를 더한다.

또 〈화조영모화〉, 〈문방도〉는 모두 20세기 전반에 제작된 병풍으로 왕실에서 제작된 장식 병풍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19세기 책가문방도는 왕실을 넘어 민가에서도 사랑받았는데 신소장품은 20세기 초 민화와 결합한 문방도의 양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이어 선비서예실에서는 이황의 〈자양금명〉을 비롯해 탑본첩과 윤순의 〈백하서첩〉, 김정희의 편지 등 6건의 신소장품을 처음 전시한다. 〈자양금명〉은 1565년 가을, 이황이 자신의 제자 금응협에게 써준 것으로 유학자답게 주희의 글을 단아하게 쓴 글씨가 특징이다.

이와 함께, 전주와 조선왕실실에서는 신소장품과 함께 지정문화재 2건도 선보인다. 〈신구법천문도〉는 2022년 보물로 지정된 천문도 8폭 병풍이다. 병풍의 제1-3폭까지는 동양의 전통적인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4-7폭에는 황도를 중심으로 북쪽의 '황도북성도', 남쪽의 '황도남성도'를 표현했다. 이 작품은 조선왕실의 천문학 수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신구법천문도를 정교하게 도해하고 아름답게 채색한 화원의 탁월한 솜씨도 보여준다. 더불어 전시실에서는 기존에 전시했던 〈이화개국공신녹권〉(국보)의 다른 부분을 풀어 전시한다. 녹권에는 태조 이성계의 이복동생인 이화가 세운 공로와 더불어 포상과 특전 등이 적혀 있으며, 닥종이의 연결 부분마다 옥새가 찍혀 있다. 조선왕조에서 처음으로 발급한 관문서로, 나라를 세운 공신들의 업적을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다.

/장은성 기자

채용신의 영모화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구성된 '전통아띠 2기' 기자단 출범식을 갖고, 시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정보와 소식 전달에 나섰다.

'전통아띠 2기' 기자단 출범

한국전통문화전당, 시민기자단 활동 시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구성된 '전통아띠 2기' 기자단 출범식을 갖고, 시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정보와 소식 전달에 나섰다.

2일 전당에 따르면 올해 2기를 맞은 시민기자단 '전통아띠'는 지난달 22일까지 공개 모집을 거쳐 선정된 여행 인플루언서, 사진작가, 대학생 등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2명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당에서 출범식을 가진 기자단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온라인 플랫폼과 개인 SNS 채널을 활용해 전당과 전통문화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게 된다.

또한 전당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체험, 교육 등에 우선 초청돼 각종 홍보 활동을 펼친다. 특히 양질의 내용과 파급력 있는 홍보 콘텐츠를 업로드 한 우수 기자들에게는 연말 시상을 통해 다양한 특전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전통아띠'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전통문화 정보를 전달하는 전당의 시민기자단"이라며 "'전통아띠'가 전당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전달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12일까지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생애 초기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누리과정과 차별화 된 예술 놀이를 운영하도록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춘 도내 문화시설이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해야만 한다.

공모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재단에 따르면 '예술꽃:핌형(일반 공모)'에 문화시설 3개소를 선정, 시설별 최소 4,000만원부터 최대 6,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예술싹:틈형(인큐베이팅 공모)'은 신규 문화시설 1개소를 선정해 2,000만원 정액 지원한다. 특히 사업 추진 권역은 중추도시권인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해 문화취약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수혜와 신규 문화시설의 발굴을 통해 지역 유아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다.

/장은성 기자

'벚꽃과 함께 국악 공연 즐겨요"

남원시립국악단, '벚꽃 음악회' 개최

남원시립국악단이 벚꽃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즐기는 '벚꽃음악회'를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저녁 7시 요천 십수정 특설무대에서 펼친다.

벚꽃음악회는 남원시립국악단이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요천을 찾은 남원시민과 관광객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자연과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국악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공연이다.

공연은 약 2시간으로, 다양한 장르의 국악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1부에는 판소리, 무용, 민요 등 전통 민속악을, 2부에는 국악가요, 국악관현악, 모듬 북협주곡 등 퓨전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시립국악단은 광한루원에서 5월~10월까지(혹서기 제외) 다양한 상설공연을 계획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는 민속악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전통소리청'을 광한루원 완월정에서 △금요일 저녁 8시에는 광한루원 영주각, 방장정 일대에서 광한루의 야경 속에서 국악의 선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광한루의 밤품경을' △토요일 저녁 8시에는 2023년 문화체육 관광부 로컬 100에 선정된 '남원 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를 공연할 예정이며, 야외공연 특성상 우천시 공연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치도 로컬 특화 여행상품 공모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18일까지 '2024 전북특별자치도 로컬 특화 여행상품 공모전(이하 공모전)' 참여 기업 총 5개 사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미식, 취미, 반려동물, 나 홀로 여행 테마 등 총 4개로, 대상은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도내 여행사,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도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선정된 5개 기업은 상품 고도화 및 시범상품 운영, 홍보마케팅, 팸투어 등 최대 2,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센터 사업과 연계하는 컨설팅 및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청년예술 배달 함께할 공연팀·기업·기관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5월 10일까지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서비스(이하 청년예술 퀵) 사업에 함께 할 공연팀과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예술 퀵'은 도내 청년예술인들이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근로자 및 특수직 무종사자, 문화 향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연을 희망하는 직장 및 일상 공간에 찾아가 소규모 공연을 제공하는 공연 방문 서비스 사업이다. 이는 전문 공연장이 아닌 직장, 학교, 병원, 모임 등 도민의 일상에 도내 청년예술인이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하다.

역량과 재능, 열정을 갖춘 도내 청년예술인은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모든 팀원이 만 18세~39세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 팀에는 도내 1년 거주한 자 또는 도내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자가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청년예술인은 연간 2회 공연배달을 진행하며, 활동비는 1회 당 팀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평일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기관은 관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하는 기업·기관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해야 하며, 공연 희망 일자를 청년예술인에게 공개하고, 일정 조율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 후 청년예술인은 기업·기관에 방문해 약 30여 분 공연을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